

“과학기술 발전 국제협력 절실”

崔亨燮회장, 日서 열린 ‘아시아과학기술회의’ 강연



▲ ‘아시아과학기술회의’에서 기조강연을 하는 崔亨燮 과총회장

崔亨燮과총회장은 지난 3월21일 니혼게이지아이신문(日本經濟新聞)사와 도쿄다이가쿠센단가가쿠 기주쓰젠큐(東京大學尖端技術研究)센터가 도쿄 오데마치(大手町) 니케이(日經)홀에서 공동 개최한 ‘아시아에서의 과학기술협력의 역할’을 찾기 위한 「아시아과학기술회의」에서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국제협력의 역할」이라는 제목의 기조강연을 했다.

이날 “지역내 협력을 위해서 새로운 틀을 짜야 한다”고 전제하면서 “과학기술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일본이 중심이 되는 「과학기술협력재단」을 구축하자”고 제안한 최회장의 강연은 큰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

쓰루다(鶴田卓彦)신문사장, 기시(岸輝雄)센터장의 인사에 이어 2명의 기조연설 [최회장과 요시가와(吉川弘之) 도다이(東大)총장]에 이은 필리핀, 인도네시아, 터키 등에서의 참가자들의 패널 디스커션에서는 각국의 과학기술의 진흥정책과 대학교육의 강화에 의욕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현황을 소개하면서 기술이전을 원활하게 추진하는 조건 등을 둘러싸고 활발하게 의견을 교환했다. 고다마(見玉文雄)센터 교수 등 일본측 참가자들도 활발한 발언을 했던 가운데 동 회의에서는 아시아 여러 나

라의 지속적인 경제 발전이나 사회의 안전을 위해서는 기술이전과 과학자의 교류를 축으로한 과학기술협력의 중요성이 커졌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개도국 기술...’ 기조강연

日本국제개발학회서도

최회장은 또 3월31일부터 4월1일까지 일본국제개발학회(Japan Societ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가 일본 도쿄(東京)에서 주최한 동아시아·태평양지역 국제회의에서 「21세기를 바라보는 개발도상국의 기술혁신」이라는 기조강연으로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받았다.

금년에 들어서 일본에서는 아시아에 있어서의 과학기술개발과 상호협력에 관한 국제회의가 자주 열리고 있는데 이번 회의의 주제는 「세계화되는 국제사회에서의 새로운 지역통합과 시민사회로의 모색」이었다. 최회장의 주제강연에 이어 여러 부문에 걸쳐 각국에서 참가한 전문가들의 열띤 토의가 이루어졌다.

基調講演抄

개발도상국이 과학기술을 둘러싼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능력을 강하게 하는 것 뿐만 아니라 국제협력이 매우 유효하다. 기술주도의 공업개발은 외국기술의 도입으로부터 시작하여 최종적으로는 기술적인 자립으로 향하는 것인데 그 과정에서 촉매의 역할을 하는 것이 기술협력이다.

선진국에서의 기술원조를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해 가는데 있어서는 신흥공업국(한국 등) 여러 나라가 축적한 경험이 도움이 된다. 기술을 받아 들이는 나라쪽에서는 능

력의 문제가 있는 한편 주는 나라쪽은 상대방의 극히 복잡한 상황을 이해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 겹을 매우는데에 신흥공업국과 선진국 또는 국제기관이 참가하는 협력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의미가 크다.

또한 과학기술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과학기술협력재단」을 일본 등 몇개 나라의 출자로 만들 것을 제안하고 싶다. 사업내용은 ① 국가 과학기술전략의 입안능력의 개발 ② 기술평가 등 기술에 관한 운영정보시스템의 개발 ③ 인재의 육성·개발 등이다.

과학기술을 주의깊게 적용한다면 국가개발에 얽힌 여러가지 장벽을 제거하는데 공헌한다. 다만 이전기술의 최적화가 강조됨

으로써 별로 고도하지 않은 기술이 이전되거나 고도기술은 외국에서 수입해야한다고 말해지거나 한다.

구래의 잣대를 써서 기술을 평가하면 중요한 요소를 간과하게 된다. 기술의 흡수능력은 그 나라의 많은 요소에 의존하고 있다. 노동집약적 혹은 자본집약적인 기술, 일반적으로 적정기술 또는 중간기술이라고 말해지는 것인데 반드시 도상국의 개발에 적합하다는 법은 없다.

자국에서의 기술혁신과 고도한 기술의 도입을 결부한 경우에 대단히ダイナミック한 전개가 일어날 수 있다. 국내기술과 외래의 기술을 이분화해서 파악한다는 것은 이들의

상호작용에 의한 다이나미즘을 애매하게 하는 경향에 빠지고 만다. 국내에서 기술개발을 하지 않고 완전히 외국의 기술에 의존한다면 그것은 경제의 대외의존, 혹은 경제의 침체에 이어진다. 한편 순수하게 연구개발에 의거하고 전혀 외국의 기술을 사용하지 않는 것은 공상이고 낭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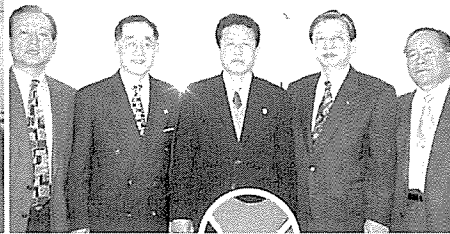
도상국은 당연히 독자성이 있는 기술 개발에서는 선진국과 승부를 겨룰 수가 없다. 독자적 기술개발은 고도의 기초기술의 축적을 필요로 하는 것이며 상당액의 연구투자를 필요로 한다. 도상국에 대해서는 다른 지역에서 개발된 최신 기술을 흡수·응용하여 점진적으로 기술 자립을 향해 이행하게

끔 계획하는 것이 유리하다.

기술이전이 성공하느냐, 마느냐는 나라의 기술개발을 좌우하나 동시에 그것은 전적으로 그 나라 기술수준의 축적에 의존하고 있다. 기술수준이 높을수록 적절한 기술평가가 가능해져서 흡수프로세스는 단축되는 것이다.

「남북 과학기술공동연구사업」활성화 제의

鄭助英단장, 중국 국제과학기술심포지엄서



▲ 北韓과학기술계를 대표하여 韓동렬 부위원장이 3월31일 韓國대표단과 자리를 함께했다. 좌로부터 趙成洛 산기협부회장, 金鎮慶 연변과기대총장, 韓동렬 북한 함경북도행정경제위원회 부위원장, 鄭助英 한국대표단장, 金晔源 과총부회장. 왼쪽사진은 제2회 국제과학기술심포지엄 전경.

한국을 비롯한 중국, 일본, 독일, 스위스, 러시아, 몽고 등 7개국이 참가한 「제2회 국제과학기술심포지엄」이 지난 3월31일부터 4월3일까지 4일간 중국 吉林省 延吉市에서 연변과학기술대학과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및 북한과학원 공동주관으로 개최됐다.

동아시아권의 산업과학기술 이전과 인력개발협력 전망, 남북한 과학기술 교류를 통한 접근방안 모색 등을 목적으로 열린 이번 국제학술회의는 생명공학, 정보통신, 화학, 자동차공학, 기술이전, 인력개발 등 분과와 남북과학기술협력력을 위한 특별분과로 나뉘어

진행되었다.

鄭助英한국대표단장(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상임부회장)은 개회식 축사에서 “이번 학술행사가 동북아시아 평화정착과 각국의 경제적 발전을 추구하면서 분단국의 쓰라림을 겪고있는 남북한 과학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학술토론과 정보교환을 할 수 있는 역사적인 장을 마련토록 추진한바 있으나 북한사정으로 계획대로 참석치 못한 점에 대하여 유감의 뜻”을 밝혔다.

이번 학술회의에는 당초 북한측의 과학기술계대표로 김충일 함경북도 행정경제위원장을 비롯한 북한과학원의

김성군박사, 북한 전자자동화센터의 컴퓨터센터 주호교수, 김경은 나진선 봉행정경제위원장 등 4명이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북한측의 사정으로 韓동렬 함경북도행정경제위원회부위원장이 대리로 참석, 3월31일 鄭助英 한국대표단장 등 한국과학기술계 대표들과 회동을 갖고 북한측 참가자들의 불참에 대해 사과하고 앞으로의 남북과학기술협력방안에 관해 협의했다.

학술발표가 종료된 후 참석자전원은 나진 - 선봉지구를 시찰할 예정이었으나 북한측의 돌연한 태도변화로 한국대표단 10명중 朴贊謨 포항공대교수(미국 시민권 소유)만이 외국인 시찰단에 동승, 나진 - 선봉지구 시찰에 참여했다.

이에 앞서 북한은 나진 - 선봉을 방문해 달라고 김경은 행정경제위원장 명의로 한국대표단에 초청장과 신변안전각서를 보낸 바 있다.

한편 鄭助英 한국대표단장은 4월3일 朴교수일행 인솔책임자 최용후(중국 예비역 대령)을 통해 김경은 나진 - 선봉행정경제위원장 앞으로 한국측 참가자들의 결의사항을 전달, 남북상호 이익을 위한 정기적 학술발표, 학술지와 논문의 교환 및 남북 과학기술 공동조사연구사업의 활성화 등을 주요 골자로한 권고안을 제시했다. ①